

바르게 살자



오 세 익

선진국과 후진국을 쉽게 구분할 때 사회규범 준수여부가 척도로 등장하곤 한다. '하지말아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제대로 지키는 국민들로 구성된 나라는 선진국이고 해서는 안될 일을 떡먹듯이 저지르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국민이 많은 나라는 후진국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 적게 버는 사람은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고소득자가 탈세하는 사례가 많은 국가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 어렵다. 자고나면 무슨무슨 게이트가 난무하고 이런 說이 저런 說을 이어가는 사회도 선진국 대우를 받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진실은 오직 하나뿐인데 이리 돌리고 저리 피해가면서 국민을 헛갈리게 하는 요즘 우리현실도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둘중의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있는 진실게임을 지켜보노라면 어떻게 그리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측은한 생각까지 갖게 된다.

주요국도나 지방도시를 다니다 보면 '바르게 살자'라고 새겨진 돌비석을 가끔 마주치게 된다. 그런데 웬일인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걸 보면 우리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가기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지 모르겠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평범한 가르침인 '바르게 살자'라는 표현이 길에 서있는 못난 이처럼 느껴져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에게 편안하면서도 삶의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특히 분명하면서도 희망적인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국민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인채업계에도 버려야 할 독소가 적지않게 도사리고 있다. 인채사등록을 한 업체가 무등록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 온 과거의 예라든가 좋은 일에 솔선수범하는 업체가 따돌림을 당해서도 안된다. 나혼자만 잘살아 보겠다는 좁은 생각과 행동으로 전체 인채업계에 먹칠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서글픈 일이다.

말이란 상대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뒤를 가리지않고 사리에 맞지않는 자신의 주장만 계속 내세우는 것도 상대방을 피곤하게 할뿐만아니라 결국은 스스로 외로움의 터널속으로 빠져드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상대방을 자신의 억지 잣대로 재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인채업계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밖으로부터의 변화에 앞서 인채업계 안에서부터 自淨의 목소리와 물결이 더욱 폭넓게 퍼져야만 한다. 이러한 흐름은 진정으로 인채업계를 위해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봉사하는 리딩그룹이 형성되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편집주간>